MZ세대에 전하고픈 불교이야기들



인생 백년 절집 반나절 쉼만 못하다
허상녕 지음
민족사
1만7500원

85세 불자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불교설화, 스님 이야기들 풀어내 MZ세대에게 불교 흥미 유발 유도 "스토리텔링으로 전법하려 합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MZ세대는 현재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축 세대이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MZ세대들이 소비하는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MZ세대의 소비 행태를 변화시키고, 기업 브랜드와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도 유도하는 것이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MZ세대, 바로 아랫세대인 알파세대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해 이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야 미래 신도와 수행자를 확보할 수 있다.

민족사가 발간한 〈인생 백년 절집 반나절 쉼만 못하다〉는 85세 불자 오피니언 리더가 MZ세대와 함께 기억하고 전하고픈 불교이야기를 담아냈다.

저자인 허상녕 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조정위원·금융발전 심의위원·세제발전 심의위원·한일중소기업협력 위원장 등을 거친 경제계 인사이다. 이렇듯 불교와 무관한 듯한 그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것은 대학 시절 한국 고대사와 동양 미술사를 부전공하며 미술사학자 황수영 교수와 감포 앞 동해에 있는 문무대왕릉과 감은사지를 현지의 보재기(잠수부)들과 같이 답사하고, 황 교수의 강의를 통해 불교의 교리와 문화, 사상과 철학 등 불교적 소양을 쌓은 덕분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어려운 불교 철학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님(원효 대사, 나옹 선사, 달마 대사 등)과 불교 설화를 통한 교훈, 왕오천축국전, 이차돈의 순교, 삼국유사 같은 친숙한 소재로 어려운 불교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가고 있다.

저자는 "어려운 철학적 이론보다는 불교에 관하여 궁금했던 점과 불교 상식 및 역사에서 변곡점이 된 유명 스님들의 스토리텔링을 소개하면, 미래 세대가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또한 "MZ세대에게 우리 정신문화의 DNA가 깊이 녹아 있는 불교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는 것이 불교 전법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어려운 불교의 열반으로 가는 3가지 수행인 계율·선정·지혜의 철학적 이치보다는 젊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불교에 쉽게 다가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붓을 들었다"고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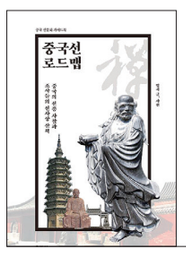
이 책을 읽으며 역사적 이야기들을 메모하다 보면 불교의 시작인 인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불교, 문화, 역사가 한눈에 보인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는 인간의 스토리텔링 결과물이고, 불경은 역사적 보물창고라는 것이다.

"우리 젊은이의 혈맥에는 불교적 DNA가 알알이 박혀 있다. 이제 2,000여 년을 답습해 온 중국불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K-불교문화'를 구축하여, K불교문화를 배우고 익히려 세계인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천년 후의 우리 후손들이 불교 철학과 문화, 사상에 의지하여 사는 국민이 되도록 하는 구상과 실행을 이끌어 낼 기회다."

–저자의 마무리 말 중에서–

문화는 한 나라의 정체성이다. 문화가 발전하면 그 나라의 위상도 높아진다. 지금의 세계적인한류 붐의 기저에는 K-불교문화가 있었다. 그러므로 미래세대에게 한국불교를 전법하는 것은 한류를 이어가는 힘이 될 것이다.

선승이 전하는 중국 선문화 '진면목'



중국선 로드맵
법지 지음
운주사
3만 3000원

불교의 역사는 융합과 습합, 변용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의 포용성은 지역, 민족, 세대, 문화, 철학 등의 경계를 무장해제시킨다.

중국에 전래된 불교 역시 중국 전통의 사상과 문화, 관습 등과 융합하여 중국적 특색을 가진 종파를 탄생시켰으니 바로 선종(禪宗)이다. 선종은 종교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이후 중국의 사상과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중국과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한국 역시 선종을 받아들여 발전시켰으며, 선종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장자종단인 조계종도 선종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의 선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선(禪)'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지금도 적지 않은 선수행자들이 중국의 선종사찰들을 순례·기행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 숭산 소림사의 달마동. 초조 달마 대사가 면벽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실참과 교학을 겸비한 수행자이자 선학자인 법지 스님(부산 대원사 주지)은 한국선의 뿌리가 되는 중국선을 연구하기 위해 중국 남경대에서 수학하며 박사학위를 받았고, 15년 동안 중국 선종사찰들을 순례하며 조사들이 가르침을 찾아왔다. 〈중국선 로드맵〉은 그 치열했던 여정을 오롯이 담아낸 기록들이다.

15년의 세월 동안 틈틈이 광활한 중국 전역을 유행하며 25명 조사들의 행적과 사상, 그들이 주석했던 사찰을 더듬어 기록했다. 사찰로는 숭산의 소림사부터 서안의 와룡선사, 인물로는 선종 초조 보리달마부터 근대의 허운 선사까지, 시대로는 1500여 년 세월을 아우른다.

수행자로서 선사들이 주석한 사찰을 찾아 그들이 남긴 선의 향기를 직접 맡아보고, 스스로 각성의 계기로 삼고자 한 정진심과 노고가 온전히 담겨 있으며, 함께 실린 사진들은 투박하지만 그 여정의 진정성을 느끼게 해준다.

법지 스님은 발문을 통해 "선사들의 깨달음이 사무쳐 약 15년의 세월을 중국을 왕래했다"며 "지금 〈중국선 로드맵〉은 저자가 본 선 맥락인 '길 없음'에서 역으로 종장(宗匠)들의 선리(禪理)의 길을 조견(照見)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 잡지 톺아보기

광개토대왕은 전륜성왕을 꿈꿨다

〈월간 불광〉 4월호



불광미디어가 발행하는 불교 대중문화 잡지 〈월간 불광〉 4월호(통권 594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 주제는 '광개토왕과 불교'다. 우리나라 최대 정복군주로 알려진 광개토왕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 '영락태왕(永樂太王)'과 '호태성왕(好太聖王)'이다. 영락(永樂)은 '영원한 즐거움'을 뜻하는 불교적 의미를 지니며, 성왕(聖王)은 전륜성왕을 뜻한다.

광개토왕은 소수림왕 시대 고구려의 불교 공인 이후,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통치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 즉위 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으며, 평양에 9개의 사찰을 세워 고구려의 평양 천도를 준비했다. 또 왕이 정복한 요동 지역에 '아육왕탑'을 세웠다. 아육왕은 인도의 아쇼카왕으로 전륜성왕을 대표한다.

즉, 광개토왕은 고구려의 전륜성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는 교시를 내려,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이 모든 일이 왕이 즉위하고 3~4년 내 이뤄진 일로 추정된다. 이번호에서는 광개토왕이 통치이념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봤다.

광개토왕의 능비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고구려 역사를 알려주는 능비의 역사적 가치, 특히 능비의 쟁점인 '신묘년(辛卯年)' 관련 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살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글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불교신앙'이다. 고구려 불교는 문헌 기록이 많지 않아, 연꽃과 예불도 등 고분벽화에 나타난 불교적 요소는 고구려 불교를 이해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일반적으로 사신도, 수렵과 무용 등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죽은 이의 연화화생(蓮花化生)을 염원하는 불교적 요소다. 한반도 역사상 불세출의 정복군주로만 알려진 광개토왕. 전륜성왕을 닮고자 했던 광개토왕의 면면을 이번 〈월간 불광〉에서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 뇌과학을 만나다

〈불교문화〉 4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계 대표 대중 문화지 월간 〈불교문화〉4월호(통권 제284호)가 발간됐다.

〈불교문화〉4월호 특집은 '불교와 뇌과학'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인 불교와 21세기 과학의 선두주자인 뇌과학은 서로 다른 분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두 분야는 놀랍게 연결돼 인간 마음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불교와 뇌과학의 연관성 연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오래 수행한 승려의 뇌기능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이 첨단 뇌과학 연구 통해 밝혀졌음을 설명했다.

이상헌 서강대 전인교육원 교수는 '뇌과학은 불교의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서 현재 뇌과학은 깨달음의 경험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깨달음을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으려면 인간의 마음은 모두 뇌의 활동 결과라는 가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는 '명상은 뇌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뇌파의 연구를 통해 명상과 같은 깊은 이완의 상태에 있으면서 깨어 있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문일수 동국대 WISE캠퍼스 의과대학 교수는 '뇌과학 연구는 불교 수행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서 뇌과학의 발달은 추상학적이던 마음을 뇌라는 구체적 물질로 이해하게 했고, 이는 그대로 불교 수행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미국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교 학생들이 선택한
마음챙김 명상의 마스터클래스!

전 세계 명상 교육·연구의 중심지 브라운대학교가 개발하고
카이스트 명상 전문가가 추천하는 과학적인 명상 프로그램
'마음챙김에 기반한 대학 생활'을 소개하다
(Mindfulness-Based College, MBC)

스무 살, 명상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
10년 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마음챙김하자!

에릭 B. 룩스 지음 | 김완두, 박용표, 김경희, 김윤희 옮김
320쪽 | 20,000원

추천의 말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완벽한 책."
- 존 카밧진,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창시자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할 선물 같은 책."
-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려고 짐을 꾸릴 때 함께 챙긴 것을 기뻐할 만한 책."
- 제프 슈만 올리비에,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내면과 외면을 탐색하고자 하는 모든 젊은 성인을 위한 필수적인 안내서."
- 저드슨 브루어, 브라운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